



풀무원,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풀무원은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풀무원아카데미 주최로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국유지(면적 1.4ha)에서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나무심기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쉬나무 4200본을 식재하며 숲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풀무원



BYD-인천소방학교, 전기차 사고 대응 교육

BYD코리아가 인천소방학교의 요청으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대상 전기차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기차 교통사고·화재·침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BYD



SKT-유한킴벌리, 안동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복구

SK텔레콤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지난 4일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 평화의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풍천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지역이다. 행사에는 SKT와 유한킴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참가했다. /SKT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편식' 열어

신한라이프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타워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실천 선편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천상영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우리銀-두산그룹,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우리은행은 두산그룹과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김민철 두산 대표이사(왼쪽)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투자 ▲협력업체 상생금융 지원 등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우리은행

김승연 회장 “새로운 100년 이끌 리더로 성장하길”

〈한화그룹〉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설립자 현암 김종희 회장 동상 참배
재학생과 50년 발자취 되돌아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한 북일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일 충청남도 천안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암께서 만들고 키우신 그 숭고한 ‘불꽃’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배들이 이룬 북일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해



김승연 회장이 4일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화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북일학원 설립자인 현암 김종희 회장의 동상을 찾아 참배한 뒤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 방명록에 “국가 인재양성의 뜻을 이어온 50주년을 기념하며 배움과 성장의 열정이 가득한 북일 100년의 미래를 만들자”고 적었다. 이어 재학생 및 교직원

들과 함께 북일고의 50년 발자취를 담은 기록 영상을 시청했다.

김 회장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북일학원 제2대 이사장을 맡아 북일고와 북일여고가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일학원 설립자인 김종희 회장은 1976년 ‘학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

의 근본적 초석이 된다’는 뜻 아래 무제한 장학금을 기부해 북일고를 설립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여할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당시 북일고는 대학 수준에 준하는 최신 시설을 갖춰 주목받기도 했다.

북일학원은 현재 북일고와 북일여고를 포함해 60학급, 재학생 1697명, 교직원 201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2만4000여 명의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싼타페 등 최대 300만원 할인 KCC, 노후주택 환경 개선에 2억 지원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 인기 차종도 할인·연료비 지원



현대 Easy Start 프로그램 배너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022년 이후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구매 할인 혜택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대차는 고객들의 차량 구매와 보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낮춘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던 구매 부담 완화 및 연료비 지원 혜택을 주요 인기 차종으로 확대·강화했다.

현대차는 우선 구매 지원 혜택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싼타페와 싼타페와 싼타타는 최대 300만원, 아이오닉6 및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200만원, 아이오닉5 최대 150만원, 포터LPDi 최대 100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 아이

오닉6, 넥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 프로그램을 쏘나타, 싼타페, 포터LPDi로 확장한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의 잔존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그 금액만큼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한다. 만기 때는 차량 반납을 통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싼타페와 쏘나타는 6개월 할부 잔가율을 3~10%p 상향했고, 포터LPDi는 할부 기간 6개월을 신설해 월 20만~30만원대의 월납입금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최대 40만원 상당의 유류비 및 충전비도 지원한다. /양성호 기자 ysw@

올해도 ‘새뜰마을사업’ 참여 9년간 누적 1325가구 개선

KCC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올해도 참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5일 KCC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해당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누적 132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도시 내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KCC는 지난해 부산 진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등에서 총 221세대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약 2억원 규모의 건축자재를 지원해 200호 내의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효율 창호 중심의 자재 지원을 통해 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中 20곳에 MRV 보급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중소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CBAM 제도는 작년 시험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속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GC, 포용적 문화조성 공로 장관표창

자폐성 장애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KGC는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과 포용적 문화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KGC는 2016년부터 임직원이 참여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 활동을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특히 2020년부터 ‘오티즘 레이스’를 후원하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KGC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KGC를 대표하여 한승규 미래전략본부장(오른쪽)이 수상했다. /KGC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누적 참가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구영민

부음

▲이병숙(향년 95세)씨 별세, 김흥식·김옥희·김성식·김관식씨 모친상, 정용주씨 장모상, 정창구(삼성전자 중동총괄

근무)·정원우(한국경제TV 기자)·정혜윤씨 외조모상 = 4일 오후 8시, 청주 하나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청주 성요셉공원. 043-270-8422 ▲조환구(전 오윤뉴스 발행·편집인, 전 강원일보 기자, 향년 59세)씨 별세, 최은례씨 남편상, 조남현(영화감독)·조남훈씨 부친상 = 4일 오전 3시30분,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강릉 청송공원. 033-610-1444